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9 ~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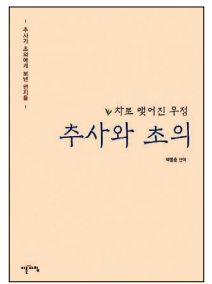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리셋	월호	마음의숲
2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법회 산행하기 경우 영산각	모과나무	7	명공 스님과 애벌레 선	보현	민족사
3	사찰의 비밀	자연	담앤북스	8	달의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죽창수필	은서주영	불광출판사	9	임제록	종광	모과나무
5	흔적 없이 나는 새(전심법요)	수불	김영사	10	11일간의 특별한 수업	아신 뽀뽀	법승미디어나



조선의 두 지성이 편지로 나는 인간에

차로 맺어진 우정 추사와 초의

박동준 편역 | 이문아침 펴냄 | 1만8천원



조선 후기의 서화가이자, 문신, 문인, 금석학자이기까지 했던 추사 김정희(1786~1866)와 13 대종사 중 마지막 대종사로 선과 계을에 밝았고 조선 후기 차(茶)의 흥중조인 초의선사(1786~1866), 두 사람의 만남은 호계삼소에 비유되기도 할 만큼 들여다 볼 것이 많은 '만남'으로 회자된다. 책은 추사가 평생의 지기였던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들을 소개하고 해설한 것으로, 2012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본지에 연재되었던 것을 묶은 것이다.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살필 수 있는 기회이다. 오늘 우리가 추사의 편지를 읽어보는 것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살피고, 추사를 알고, 초의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시대적 사안이나 한 사람의 생애를 직간접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편지의 특성은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데에도 요긴하다. 더구나 편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는 상세한 속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들 간에 오고간 대화에는 꾸밈이 없어 진솔한



초의선사

추사 김정희



<주상운타첩>에 실린 추사의 친필 편지

추사가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해설
두 지성이 편지 통해 나는 우정 담겨
현대인들이 들여다볼 것 많은 '교유'
인간에 부족한 시대에 필요한 교훈 많아
추사의 편지 단순한 서간문 아닌
수필·평론 기능 갖춘 '문학' 평가

언어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다. 아울러 옛사람을 이해하고 시대를 살펴보기에 충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특히 추사가 초의 스님에게 보낸 편지에는 조선 후기 지성인의 진솔한 언어가 담겨 있다. 그의 삶에 대한 회한과 연민, 우정을 나는 벗에게 보낸 소박한 온기는 추사의 편지에 이어진 정서이며 신분을 초월한 이들의 교유는 유불의 교유사에 오래 남을 일이다.

추사의 문집은 대부분이 편지글이라고 할 만큼 평생 동안 편지를 많이 썼다. 추사의 글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편지 형식을 빌린 문학으로서 수필과 평론의 기능을 갖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문학적 감수성과 내면 생활을 묘사한 추사의 편지들 가운데 유독 초의선사에게 보낸 편지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것은 이들이 서로에게서 느낀 공감대가 그만큼 깊고 넓었기 때문일 것이다.

책에 소개된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는 추사의 문집에 수록된 것 이외에도 몇 편의 개인 소장본 간찰을 수집한 것으로 대략 70여 편이 조금 넘는다. 안타깝게도 초의 스님이 추사에게 보낸 답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사의 편지글만으로도 이 두 지성이 나는 우정을 추측해 보기엔 부족함이 없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과 교감은 인간애와 더불어 두터운 신뢰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가치를 인식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고차원의 배려가 바로 인간애이며, 이를 위해서도 서로의 향상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추사와 초의 스님이 나는 따뜻한 배려와 두터운 신뢰,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며 우정을 실천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추사의 편지에는 요즘 글에서 느낄 수 없는 큰 울림이 있다. 하지만 현대의 우리는 이런 언어가 웬지 낯설다. 저자는 어휘의 단절이 불러온 결과라고 말한다. 즉, 소통의 도구로서의 문장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추사의 편지는 실로 이상적인 삶을 고민한 사람의 자취이기에 이 시대의 우리에게 물질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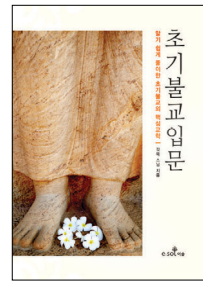
책에 소개된 추사가 초의 스님에게 보낸 편지들을 통해 우리는 추사와 초의 스님이 나는 배려와 인간애, 차를 통해 다져진 두 사람의 아름다운 우정을 느낄 수 있다. 인간애가 넘쳐나는 시대 아닌 것만은 분명한 시대다. 소통과 배려가 모자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두 지성이 편지 속에 남긴 문장들은 그저 '오래된 글자'가 아닌 것이다. 그 오래된 문장들은 고사 직전의 인간애를 되살릴 수 있는 작은 물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추사의 편지를 들여다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며, 출간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그 옛날의 지성이 남긴 문장마저 소용없는 시절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부처님의 원음인 초기불교는 불교의 뿌리”

초기불교입문

각목 스님 지음 | 이슬 펴냄 | 1만3천원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인 각목 스님이 초기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명쾌하게 풀이한 불교 입문서이다. 초기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불교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5온, 12처, 18계, 4성제, 12연기, 37보리법문, 사마타와 위빠사나, 계정해 삼학 등의 주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초기불교를 공부하는 데에 유용한 길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 2600년사의 흐름은 석가모니부처님, 즉 고타마 싯닷타로부터 출발한다. 후대의 모든 불교는 석가모니부처님이 깨닫고 45년간 설법했던 그 가르침을 뿌리로 해서 전개된다. 2600년 불교의 흐름을 구분할 때 일반적으로, 초기불교-아비담마(아비달마)-반야중관-유식(유가행)-여래장-정토-밀교-선불교의 여덟 가지 큰 흐름으로 나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초기불교는 불교의 뿌리인 것이다. 초

기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존재할 수 없듯이 부처님의 원음인 초기불교의 정확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불교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불교란 무엇인가. 초기불교는 부처님과 그의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후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율은 우바리 존자가 율어서 율장으로 결집되었고, 법은 아난다 존자가 외워서 경장으로 결집되었다. 현존하는 이 뼈알리 삼장, 즉 다섯 권의 율장과 5부 니까야로 구성된 경장과 일곱 권의 논장에 전승되어 오는 모든 가르침이 초기불교이다. 역사적으로 남방 상좌부에 전승되어 오는 니까야와 북방에서 한역되어 전승되어 아함인 초기불교의 분명한 전거(典據)가 된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초기불교의 중요성은 재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책은 초기불교의 중요성을 여덟 가지로 말한다.

저자인 각목 스님은 2010년에 니까야에 토대를 둔 초기불교 교학과 수행에 대한 해설서인 <초기불교이해>를 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초기불교이해>는 본격적인 해설서이고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 불교를 접하는 독자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 이번에 출간된 <초기불교입문>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다. 박재완 기자

달마 이전으로 돌아가 禪을 보다

달마 이전의 중국선

형운(이성욱) 지음 | 정우서적 펴냄 | 1만8천원



책은 양나라 혜교의 <고승전>에 담긴 선 용어를 분석하여 달마 이전의 중국 선사상을 밝혀내고 있다. 책은 '선종'이라는 종파적 의식이 가미되어 있지 않은 선, 수행법에 관한 순수 체험과 함께 다양한 선적인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에서 들어온 선의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수행 방법들이 풍부하며 오늘날 알려진 선 수행법들의 연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고승전>에 나타난 선 용어에 대한 선학적 고찰이 선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본 연구의 동기다.

책은 우리가 사용하는 선어 분석을 통해 간화선으로 대표되는 선종, 달마 이전의 중국선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번 연구는 선불교 연구의 외연을 확장시켰으며, 달마로부터 전개된 조사선과 목조·간화선에 대한 이해와 현대사회에 유행되고 있는 남방선의 연구 및 수행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완 기자

신분 차별의 시대에 여성도 성불하고, 불가촉천민도 성불할 수 있다는 절대평등의 진리를 일깨워준 승만경!

'누구나 다 여래의 씨앗을 품고 있다'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여래장 사상!
문문사 일진 스님이 잔잔하고 섬세한 필치로 해설하는 그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해진다.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승만경은 여래가 될 수 있는 경전,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전이다. 40여 년을 경전 연구와 탁월한 번역가로 전업 활동을 해온 경험으로 저술된 일진 스님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많은 이들이 읽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고대한다.

-문문사 회주 명성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일진 스님은 1970년 제석(錫)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8년 월하月下 화상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하였다. 1978년 동국대학교 승가학과와 문문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 1985년 법계명성 스님으로부터 전장을 받았다.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외래강사, 조계종 교재편찬위원 역임. 2004년부터 현재 단일계단 갈마위원 교수사, 2010년 문문사 주지, 제15대 조계종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최고의 비구니 수행도량인 문문사에서 학인 지도와 지역불교에 전념하며 한국불교에 희망의 주춧돌을 놓고 있다.

문문사 | 출판부 | 서울로 81 두산타워빌딩 1131호 |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njksa.org 이메일 mnjksa@naver.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njksa | 053-02-109450 | 예금주 문재승